

“학교교육 주체, 의사결정 참여 보장”

전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교육 주체들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등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두고 직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는다.

아울러 학교에 회의기구로 교무회의를 두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자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전북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개선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이 제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239-3736) 또는 팩스(220-9409)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박상문 회장 재선 취임식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박상문 회장 재선 취임식이 지난 20일 오전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배숙 국회의원 등 각계 30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박상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018년도 무상입학지원금 시행 및 2019년도부터 무상지원학교운영비(육성비)지원 예산 설정과 2019년도 무상교육복지지원 사업을 세우고 있다”며 사업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전직, 현직 시군 협의회 회장들과 긴밀한 협조하면서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북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교육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인구유출의 요인이 큰 만큼 자녀교육을 위해 다같이 힘을 쓰자”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대학교가 21일 군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군산대, 2017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개최

군산대학교는 21일 군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201명, 석사 90명, 박사 13명 등 총 30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총동문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회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하였다.

수여식은 개식, 국민의례, 학사보고, 식사, 축사, 학위수여,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영여영문학관과 전재민 등 201명에게는 학사 학위가, 행정학과 쉬임 등 90명에게 석사학위가, 이일권 등 13명에게 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광병선 총장은 “계절에 춘추동풍이 있는 것처럼 삶에도 통과해야 할 문턱이 각각 있다”면서, “각 문턱마다 통과해야 할 것들이 모두

다르지만 문턱을 넘을 때마다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은 다 같다”고 말했다.

또한 광 총장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진짜 시험은 졸업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졸업 이후에도 꾸준함을 가지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주대, 일본 원아시아 재단과 손잡다

‘아시아공동체와디아스포라’ 내달 3일부터 15주간 강좌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일본 원아시아재단(One Asia Foundation, 이사장 사토 요지)의 지원을 받아 오는 9월 3일부터 15주간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Ⅲ)’ 강좌를 연다.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강좌는 지역성(Local)과 세계성(Global)을 접목한 글로벌(Global) 인문학과 아시아 공동체의 역사가 중요시되는 현재, 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이다.

2016년도 2학기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Ⅰ)’이 시작되어 올해 세 번째 강좌가 열린다. 지난해 열린 ‘아시아 공동체와 디아스포라(Ⅱ)’에서는 약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전주대 2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 강좌는 한경대 윤휘택 교수의 “동아시아의 방랑자들(nomad) : 민주의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의 삶”이란 강연을 시작으로 고려대 이형태 교수, 경북대 김경남 교수 등 국내 강사진을 비롯해 일본 쓰쿠바대학의 아오야기 에쓰코 교수,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 중국 연변대의 김광희 교수 등 각국의 강사진으로 15주 간의 강좌가 꾸려졌다. 15주의 강연을 통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디아스포라 문제 및 조선족의 북한 이주, 프랑스 식민지 귀환자, 한

국의 재외국민 선교사 등의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디아스포라’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본 강연은 전주대 재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도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진행을 담당하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는 “2016년, 2017년의 두 차례 강좌가 ‘디아스포라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 강좌는 디아스포라의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실제 ‘시람’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며 “병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강사들을 모신 만큼 많은 학생들이 모여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지역과 한국을 넘어 세계 문제까지 시야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재단법인 원아시아재단은 재일동포 3세인 사토 요지 이사장이 2009년 사재 100억 엔을 출연해 ‘미래를 위한 아시아 공동체의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원아시아 재단의 아시아 공동체 강좌 개설 지원은 현재 21개국 168개의 대학(2018년 6월 기준)에서 개설 혹은 준비 중이다.

이번 강의를 주관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 등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인문학 관점으로 미래 공동체의 대안에 대한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중소기업 미국 수출 지원

전북대학교 GTEP사업단(단장 김민호 무역학과 교수)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무역 전시회에 도내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해 수출 성과를 올렸다.

이 사업단 임종만 학생(무역학과 3년)은 최근 전북지역 협력 업체인 (주)다인스와 2018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에 참가해 미국과 캐나다 유력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 16건에 걸쳐 총 3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주)다인스는 손톱미용 도구 및 발각질 제거기를 제조하고, 최근에는 화장품 개발과 탄소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전북 최고의 벤처기업으로 손꼽힌다.

우수한 제품을 통해 해외 수출 활로 개척을 모색하던 차에 전북대 GTEP사업단 협력 기업으로 참여하면



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이번 성과까지 이르게 됐다.

김민호 사업단장은 “임종만 학생의 우수한 영어 구사 능력과 일처리 능력, 그리고 (주)다인스 우수 상품 경쟁력 등이 시너지가 되어 이번 성과로 귀결됐다”며 “앞으로도 무역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한옥 전문가 양성 ‘맞손’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원장 원광석)과 한옥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21일 오전 11시 전북대 총장실에서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원광석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개설·운영하는 한옥 교육에 필요한 교수진과 교육시설 등을 지원한다.

교육에는 한옥이론뿐 아니라 한옥 공구 사용법, 치목, 실습, 체험 및 답사 등이 이뤄진다. 교육은 전북대 전

임 교수진과 석좌교수이자 인간문화재 제74호인 최기영 대목장, 전통 목수 등 최고 교수진이 맡는다.

이를 통해 전통 한옥 기법인 짜맞춤 기법을 이용해 교육생들이 직접 한옥모형을 제작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옥건축 특성화 캠퍼스로 각종 첨단 강의실과 실습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는 고창캠퍼스에서 실습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고창캠퍼스에서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매년 대학이 다양한 한옥 건축 관련 교육을 유치하고 확대 나가면서 전북대가 한옥의 메카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대학이 갖고 있는 우수한 한옥기술을 지역과 국가를 위해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